

올해 광주·전남 3만여명 수능 치른다

市 1만6천846명·道 1만3천941명...전년비 4.7%·3.6% ↑
광주 검정고시생 15% 증가...의대 증원에 졸업생도 늘어

오는 11월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광주·전남지역에서 3만787명이 응시한다.

11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25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광주 1만6천846명, 전남 1만3천941명이 각각 지원했다. 전년 대비 광주 757명(4.7%), 전남 478명(3.6%) 증가했다.

광주지역 응시자 중 재학생은 1만1천884명(69.4%), 졸업생은 4천420명(26.2%), 검정고시생 등 기타 지원자는 742명(4.4%)으로 집계됐다.

고3 재학생 수는 지난해 대비 572명(5.1%), 졸업생은 88명 (2.0%) 각각 늘었다.

특히 검정고시 등 지원자가 97명(15%) 늘어 지난해 응시자 대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자 8천646명(51.3%), 여자 8천200명(48.7%)으로 남자가 446명 많았다.

전남지역에서는 재학생 1만1천192명(80.3%), 졸업생 2천355명(16.9%),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 304명(2.8%)이 지원했다.

고3 재학생은 지난해 대비 458명(4.7%) 늘었으며, 졸업생 4명(0.8%),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 16명(4.2%)이 각각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자 6천800명

(49.4%), 여자 7천51명(50.6%)으로 여자가 161명 많았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수능 지원자는 전년 대비 재학생, 졸업생, 검정고시생이 모두 늘었다"며 "이는 고3 재학생 증가, 서울 16개 대학 정시 확대, 의대 정원 증원, 무전공 선발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전국 수능 지원자는 52만2천670명으로 전년도 50만4천588명보다 1만8천82명(3.6%) 증가했다. 전국 지원자 중 고3 재학생은 34만777명(66.2%), 졸업생은 16만1천784명(31%),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2만109명으로 전년도 대비 검정고시생이 1천909명(10.5%)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김다이 기자



늦더위 식혀주는 쿨링포그

가을의 기운이 완연해진다 절기 '백로(白露)도 지났지만 폭염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11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 설치된 '쿨링포그(인간형 냉각 분무시설)' 사이로 시민들이 걷고 있다. 폭염

은 추석 연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김애리 기자

오늘의 날씨

인천	25/29
서울	25/30
춘천	23/28
대전	25/31
강릉	23/26
전주	26/32
대구	24/31
목포	26/32
광주	25/32
부산	26/32
제주	27/33
여수	26/31
목포	26/32
흑산도	25/33

해돋이 06:13 해질 18:44
달 뜨기 14:45 달 뜨기 ---

광주 구름비	25/32
목포 구름비	26/32
여수 구름비	26/31
나주 구름비	25/32
완도 구름비	26/33
구례 구름비	25/32
강진 구름비	26/32
해남 구름비	25/32
장성 구름비	24/32
보성 구름비	24/30
순천 구름비	25/32
영광 구름비	25/32
진도 구름비	26/32
흑산도 구름비	25/33
고흥 구름비	25/33

●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40 🛒 빨래 20 🚗 세차 30 🏃 운동 50

우산 챙기세요 실내 건조 좋아요 세차는 다음으로 우비 필요해요

●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0.5-1.5
	면바다(북)	0.5-2.5
	면바다(남)	1.5-3.0
남해 서부	앞바다	0.5-1.5
	면바다(동)	1.0-2.0
면바다(서)	1.0-2.0	0.5-2.0

●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목포	07:26	00:36
	20:37	12:38
여수	01:42	08:06
	16:09	23:34
녹동	02:15	09:29
	17:20	---

● 전국 날씨

날짜	광주	서울	강릉	대구	제주
9월 13일(금)	☁️ (24/33)	☁️ (25/29)	☁️ (23/28)	☁️ (24/33)	☀️ (26/32)
14일(토)	☁️ (24/33)	☀️ (25/31)	☁️ (23/27)	☁️ (24/32)	☀️ (27/32)
15일(일)	☁️ (24/33)	☀️ (23/32)	☁️ (23/28)	☁️ (22/29)	☁️ (26/32)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전남교육청, '이주배경 학생' 초등교사 임용

2025학년도 시험 계획...전국 첫 다문화전형 신설
전남 225명·광주 66명...오는 30일-내달 4일 접수

전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지역에서 자란 이주배경 학생을 공립 초등교사로 선발하는 다문화인재전형을 신설했다.

1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25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유치원 49명, 초등 155명(지역구분 모집 23명 포함), 특수학교(유치원·초등) 21명 등 총 225명을 선발한다.

이는 사전예고했던 198명보다 27명

늘어났으며 지난해 선발인원 181명 대비 44명 증가했다.

선발 인원이 늘어난 것은 2025년부터 투입되는 늘봄 지원 실장 인력과 늘봄학교에 대한 수요 반영, 타 시도로 유출될 수 있는 인원만큼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해 재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초등 선발에는 다문화인재전형(지역구분 모집 23명 중 3명)이 신설돼 전남에서 자란 이주배경 학생

이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돼 전남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최초 사례로 교육계 안팎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역은 사전예고와 동일하게 유치원 10명, 초등학교 45명, 특수학교(유치원·초등) 11명 등 총 66명을 선발한다. 지난해 선발 인원 20명 대비 46명이 늘었다.

유·초등 교사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10월4일까지다. 1차 필기시험은 11월9일, 2차 면접 및 수업 실연은 2025년 1월8-10일 3일간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2025년 2월5일 발표된다.

/김다이 기자

시교육청, 추석 연휴 학교 주차장 144곳 개방

광주시교육청은 11일 "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 편의를 위해 오는 14-18일 교육청 청사 등 교육행정기관 15곳, 학교 129곳 등 총 144곳의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교육청은 같은 부지를 사용하는 광주교육연구정보원 주차장을 포함해 총 313편을 24시간 개방한다.

주차장 개방 시간은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결정해 운영한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기관과 학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방하지 않는다.

시교육청은 연휴 기간 시민들이 개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운영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이번 주차장 무료 개방이 명절 연휴 귀성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이 기자

"고독사 예방" 남구, 사후 관리 나선다

1인 가구 전수조사...위험군 332명

광주 남구가 홀로 사는 주민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후 관리에 나선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최근 1인 가구 생활 실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수백명의 주민이 1주일에 단 한 차례도 외출하지 않거나 심각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8월 관내 거주 40-80세 1인 가구 1만5천787명을 대상으로 대면·전화 조사를 실시, 1만2천888명이 응답했다.

▲일상적 고립 ▲사회적 고립 ▲경제적 취약성 ▲신체적 취약성 ▲심리·정서적 취약성 등 5개 분야 12개 문항 점검표를 분석한 결과 현재 관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인원은 14명, 중위험군은 318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구는 고독사 위험군 주민을 대상으로 일대일 안부 살피기 활동가를 배치해 외출에 나서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3시간 이내 안부를 살피고 긴급 상황 발생 시 24시간 이내 응급조치를 하는 '3-24H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조사·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주민들과도 지속해서 관계를 형성,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월출산 아래 사람 냄새가 나는

영암5일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5, 10일로 끝나는 날

넉넉한 인심과 정이 넘치는

신북5일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3, 8일로 끝나는 날

전통시장 나르미 운영

영산강이 길러낸 우리 농산물 가득한 곳

시종5일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2, 7일로 끝나는 날

독천 낙차거리 갈낙탕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독천5일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4, 9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영암군

문의 : 062)650-2099